

제1교시

국어 영역

1

[1 ~ 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언어 공동체’에 대해 배운 것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다양한 언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들을 배려하며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체적인 담화 상황 속에서 참여자 간의 관계에 어울리는 적절한 어휘와 문법 요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관계를 고려한 언어 표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관계를 고려한 어휘를 먼저 살펴보면 대표적인 것으로 호칭어가 있습니다. 호칭어란 어떤 대상을 부르는 말을 뜻하는데요, 호칭어는 성별, 연령, 상하 관계 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대방도 담화 상황에 따라 관계가 달라져 호칭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친한 친구를 직장에서 업무 관계로 만나게 된다면 ‘김 과장’처럼 직함으로도 부르지요.

관계를 고려한 문법 요소도 있습니다. 문법 요소는 높임 표현과 문장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텐데요, 먼저 높임 표현입니다.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방법을 상대 높임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의 나이나 지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담화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대방도 높임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금 저도 ‘고려합니다’, ‘있습니다’로 문장을 끝맺었지요? 사적인 상황에서 대화할 때와 달리, 담화 상황을 고려해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반응을 살피며) 네, 그렇다면 제가 공적인 담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상대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다음은 문장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할 때 명령문보다 평서문이나 의문문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담화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명령문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가 부담을 덜 느끼도록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방 청소 좀 해.”라는 명령문 대신 “네 방 청소 좀 하는 게 좋겠어.”처럼 평서문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언어생활에서 참여자 간의 관계는 어떻게 말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언어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에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다.
 - ② 발표를 하게 된 소감을 밝히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던져 청중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 ⑤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발표를 하기 위해 학생이 세운 계획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도입	○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환기하고, 발표 화제가 ‘관계를 고려한 언어 표현’임을 소개해야겠어. ①
전개	○ 호칭어의 개념을 제시하고, 담화 상황에 따라 호칭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해야겠어. ② ○ 같은 상대방도 높임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겠어. ③ ○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문장 유형을 잘못 사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야겠어. ④
정리	○ 발표를 듣는 학생들에게 언어생활에서 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의 의의를 언급해야겠어. ⑤

3. <보기>는 위 발표 후 이어진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호칭어와 상대 높임의 실현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호칭어는 주로 명사나 대명사로 실현되는데, 상대를 높이는 상황에서는 명사에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를 결합하거나 상대를 높여 이르는 대명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상대 높임은 종결 표현으로 실현되며,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습니다. 높임의 정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격식체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로, 비격식체는 해요체와 해체로 나뉩니다. 다음에서 관계를 고려한 표현을 찾아 설명해 볼까요?

수민: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 반장, 오늘 급식 맛있었지?
민지: 응, ㉡ 진짜 맛있었어.
선생님: (수업 시작 후 교실에서) ㉢ 학생들,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부터 주제 탐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민: (앞에 나와 친구들을 바라보며) 저는 헛갈리는 맞춤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 여러분, 여기 화면을 봐 주십시오.
선생님: (발표가 끝난 후) 발표자에게 질문 있는 학생 있나요?
민지: ㉤ 선생님, 제가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수민이에게) ㉥ 발표 내용과 관련된 사례가 더 있습니까?

학생: [A]

- ① ㉠과 ㉡은 모두 명사로 실현된 호칭어를 사용했지만, ㉠과 달리 ㉡의 호칭어는 접미사가 높임의 뜻을 더하고 있어요.
- ② ㉢과 ㉣은 같은 상대방에게 사적 상황에서와 공적 상황에서 종결 표현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 ③ ㉢과 ㉣은 모두 공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위가 자신보다 높지 않은 상대방에게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 ④ ㉤은 ㉢과 달리 상대를 높여 이르는 대명사를 호칭어로 사용해 청중을 높여 이르고 있어요.
- ⑤ ㉥과 ㉦은 모두 격식체가 나타나고, 종결 표현이 실현하는 높임의 정도도 같아요.

[4~6] 다음은 역사 동아리 학생들의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지난 토의에서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석탑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석탑의 실사 이미지를 화면에 구현하여,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석탑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1: 석탑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 학생들에게 석탑을 층별로 확대한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석탑의 구조를 함께 설명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학생들이 석탑을 그 구조에 따라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3: 동의합니다. 또한 석탑의 각층에 새겨진 조각의 의미도 함께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A]

학생 2: 석탑의 외형에 대한 정보만 소개하면 구성이 단조롭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석탑에 얹힌 전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학생들이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오누이 전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전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2: 아시다시피 △△석탑에는 과거 오누이가 서로 탑 쌓기 실력을 겨루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이 탑 아래쪽에 있는 기단부에 남아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오누이 전설을 설명해 준 뒤 석탑의 기단부 이미지에서 그 흔적을 직접 찾게 한다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 1: 전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자는 생각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석탑의 외형에 대한 정보와 전설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B]

학생 3: 프로그램의 큰 흐름은 전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석탑의 외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사회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학생 2: 학생들은 흥미가 없는 프로그램은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목적도 고려하면 우리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합니다.

학생 3: (가)

사회자: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토의 내용을 반영해 제가 동아리 활동 기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4. 위 토의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난 토의의 내용을 정리하고 토의를 시작하고 있다.
- ② 토의 결과를 활용할 계획을 밝히고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 ③ 토의 참여자가 밝힌 의견에 감사를 표한 후 토의를 이어가고 있다.
- ④ 토의 참여자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⑤ 토의 참여자에게 질문하여 발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확인하고 있다.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학생 2’는 ‘학생 1’, ‘학생 3’의 의견과는 다른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의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1’은 ‘학생 2’가 직전에 발언한 내용을 재진술한 후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2’는 토의 참여자들의 배경지식을 언급한 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⑤ [B]에서, ‘학생 3’은 ‘학생 1’이 제시한 추가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6. <보기>는 ‘학생 3’이 토의를 준비하며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가)에 제시할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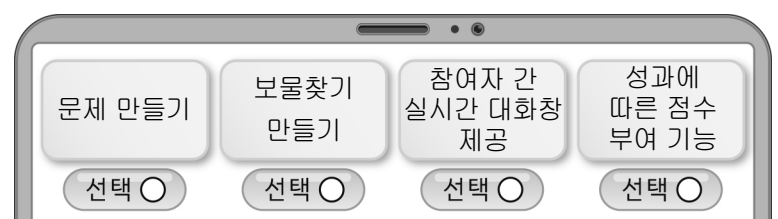
< 보 기 >

[자료 1] 교육 전문가 인터뷰

교육 활동에 게임 방식을 도입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게임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게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게임에서 개인의 성취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자료 2] 증강현실 프로그램 제작 도구의 사용 설명서

증강현실 속 게임 만들기 기능: 아래의 게임 요소들 중 원하는 요소를 선택하여 원하는 게임을 제작하는 기능 (중복 선택 가능)



[자료 3] 교육 전문 누리집에서 수집한 활동 목록

활동명	진행 방식
보물찾기 게임	지정된 장소를 탐색하여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게 하는 것을 통해 집중력과 순발력을 확인하는 활동
퀴즈 게임	제시된 문제를 맞히며, 맞힌 개수를 통해 학생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활동
그림 활동	제공된 도면에 자유롭게 채색하며, 창의력과 표현력을 확인하는 활동

- ①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그림 활동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 ② 학생들의 집중력과 순발력을 확인하기 위해 ‘보물찾기 만들기’를 선택해 보물찾기 게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 ③ 프로그램에 대한 감상을 나눌 수 있도록 ‘참여자 간 실시간 대화창 제공’으로 학생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 ④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 ⑤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이해도 확인을 위해 ‘문제 만들기’와 ‘성과에 따른 점수 부여 기능’을 활용한 퀴즈 게임을 만들고, 학생들의 흥미를 지속시키기 위해 맞힌 개수에 따라 보상을 주면 좋겠습니다.

7. 다음은 학생의 학습 노트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배운 내용>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의 선후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뉜다. 시제는 선어말 어미나 관형사형 어미 등으로 실현된다. 한편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완료되었는지 등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이다. 동작상에는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진행상과 동작이 이미 완료된 모습을 표현한 완료상이 있다.

<학습 과제>

아래 조건이 모두 실현된 문장을 작성하세요.

◦ 진행상이 나타날 것.

◦ 현재 시제를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가 나타날 것.

◦ 과거 시제를 실현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나타날 것.

<과제 수행 결과>

[A]

- 방에 날아다니는 모기를 모조리 잡아 버리겠다.
-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 준비한 음식을 먹는다.
- 그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다들 잘 먹는다며 웃고 있다.
- 그녀는 오래전 친구한테 선물 받은 책을 지금 읽고 있다.
- 나는 평소에 할머니께 식사를 차려 드린 후에 학교에 간다.

8. 다음은 음운 변동에 대해 학습하기 위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지

음운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본래 없던 음운이 새로 덧붙는 첨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으로 구분됩니다. 다음 단어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모두 표시(✓)해 봅시다.
(단, 음운 변동이 일어난 횟수만큼 표시함.)

	단어	답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	날날이[난:나치]	✓✓			✓
㉡	옷맵시[온맵씨]	✓✓✓			
㉢	호박엿[호:방넌]	✓✓		✓	
㉣	급행열차[그팡널차]			✓	✓
㉤	넓죽하다[넙쭈카다]	✓	✓		✓

- ㉠
- ㉡
- ㉢
- ㉣
- ㉤

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다음은 ‘고유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 구성의 합성어에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식이다.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결합한 두 명사 중, 앞 단어가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나는가?

아니요 → 길+가

예 →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가?

예 → ㉠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가?

예 → ㉡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가?

예 → ㉢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아니요 → 머리+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 | | ㉠ | ㉡ | ㉢ |
|---|------|------|------|
| ① | 나루+배 | 코+날 | 존대+말 |
| ② | 이+몸 | 나무+잎 | 예사+일 |
| ③ | 해+빛 | 제사+날 | 깨+잎 |
| ④ | 재+더미 | 뒤+마당 | 만두+국 |
| ⑤ | 비+소리 | 고기+국 | 배개+잇 |

10.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졌다. 모음 조화란, ㉠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체언에 조사가 결합할 때나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활용할 때 적용되었다.

양성 모음	ㅏ, ㅑ, ㅓ, ㅕ
음성 모음	ㅗ, ㅛ, ㅜ, ㅠ

- | | ㉠ | ㉡ |
|---|-----------|-----------|
| ① | 나를 (나를) | 불ㄴ니 (밝으니) |
| ② | 홀글 (홀을) | 머그니 (먹으니) |
| ③ | 브르매 (바람에) | 노ㅎ니 (놓으니) |
| ④ | 사르믹 (사람의) | 거르니 (걸으니) |
| ⑤ | 거부비 (거북의) | 업스니 (없으니) |

[11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고 자기장 에너지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자기장에서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자기력선은, 자석 외부에서는 N극에서 S극으로,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향하는데, 서로 겹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두 자석이 만나면 자기장 사이의 자기장 에너지를 낮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같은 극성 사이에는 두 자기장 사이의 자기장 에너지가 높아져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다른 극성 사이에는 자기장이 이어지며 서로 당기는 인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장치가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이다. 영구자석 동기전동기는 영구자석과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성을 띠는 전자석 사이의 인력과 척력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바꾸는 전기 자동차의 핵심 장치이다. 전동기에는 영구자석이 부착된 원형의 회전자가 자동차 바퀴와 연결된 중심축에 결합되어 있고, 회전자 바깥쪽에 약간의 틈을 두고 이를 감싸는 원통형의 고정자가 배치되어 있다. 고정자의 안쪽에는 원통의 한쪽 밀면에서 다른 쪽 밀면까지 이어져 있는 수십 개의 슬롯이 일정한 간격으로 파여 있다. 이러한 슬롯을 여섯 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을 때 마주 보는 구역끼리 짝지은 한 쌍의 구역은 하나의 전선 다발로 감겨 있다. 이때 하나의 슬롯으로 들어간 전선은 마주 보는 슬롯으로 나온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자동차의 제어 시스템은 전자석 형성 과정과 회전력 제어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전동기를 구동한다.

전자석 형성 과정은 고정자의 특정 구역에 전류가 흘러 만들어진 자기장들의 상호 작용으로, 회전자가 있는 밀면 쪽의 고정자 표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석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자동차가 가속 신호를 받으면 제어 시스템에서 배터리의 전류를 특정 구역의 전선 다발에 흘려보낸다. 그러면 오른손 엄지를 전류 방향에 맞췄을 때 네 손가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오른나사 법칙에 따라 전선 다발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때 전선 다발을 따라 전류가 고정자에서 밖으로 나오는 구역의 자기장은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고정자의 안으로 들어가는 구역의 자기장은 시계 방향으로 형성된다.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인 두 자기장이 고정자 표면에서 마주하면서, 자기장이 나가는 방향은 N극, 들어오는 방향은 S극을 띠는 전자석이 만들어진다.

회전력 제어 과정은 이렇게 형성된 전자석의 자기력과 회전자 내 영구자석의 자기력으로 바퀴의 회전력을 조절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제어 시스템은 배터리의 전류를 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교류로 변환하여 고정자 내 세 쌍의 슬롯 구역에 각각 시간차를 두고 공급한다. 제어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전류의 방향을 바꿀 때마다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로 바뀐다. 또한 특정 구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강할 때 나머지 두 구역의 전류의 세기는 각각 그 절반이 되도록 시간차를 조절하는데, 이는 전류의 세기는 전자석의 자기장 세기에 비례하므로 고정자에 흐르는 전체 전자석의 자기장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함이다. 이처럼 일정한 주기로 각 구역에 형성된 자기장들의 방향과 세기가 순차적으로 변하면서 마치 하나의 전자석이 회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회전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 제어 시스템은 회전하는 영구자석의 N극 위치를 산출하여 N극이 회전하는 방향의 90도 앞선 위치에 전자석의 S극을 형성하여 영구자석을 인력으로 당기게 하고, 동시에 뒤쪽에는 전자석의 N극을 형성하여 영구자석을 척력으로 밀어내게 함으로써

바퀴에 최대한의 동력을 전달한다.

자동차가 특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면, 회전자가 빠르게 회전하여 영구자석의 자기장에 의해 고정자의 자기장이 불안정해진다. 그러면 안정된 자기장을 유지하려는 관성으로 발생하는 역기전력이 커지게 된다. 역기전력이 커져 배터리 전압을 상쇄하기 시작하면 고정자에 흐르는 전류가 방해받아 전동기의 회전 속도에 제한이 생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어 시스템은 영구자석에 전자석이 겹쳐져 영구자석의 N극과 전자석의 S극이 같은 방향에 놓이도록 전류를 제어한다. 이때 고정자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면서 영구자석의 자기장 에너지와 전자석의 자기장 에너지가 상쇄된다. 그 결과 ㉠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제한하는 역기전력의 크기도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전류가 다시 원활하게 흐르면서 전동기가 빠르게 회전할 수 있게 된다.

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석 내부의 자기장은 S극에서 N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형성된다.
- ② 두 자석의 서로 다른 극성이 만나면 자기장이 이어지며 인력이 발생한다.
- ③ 영구자석 동기전동기는 인력과 척력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바꾸는 장치이다.
- ④ 고정자에는 영구자석이 부착되어 자동차 바퀴와 연결되어 있다.
- ⑤ 고정자 안쪽의 슬롯들은 마주 보는 구역끼리 짝을 이루어 하나의 전선 다발로 감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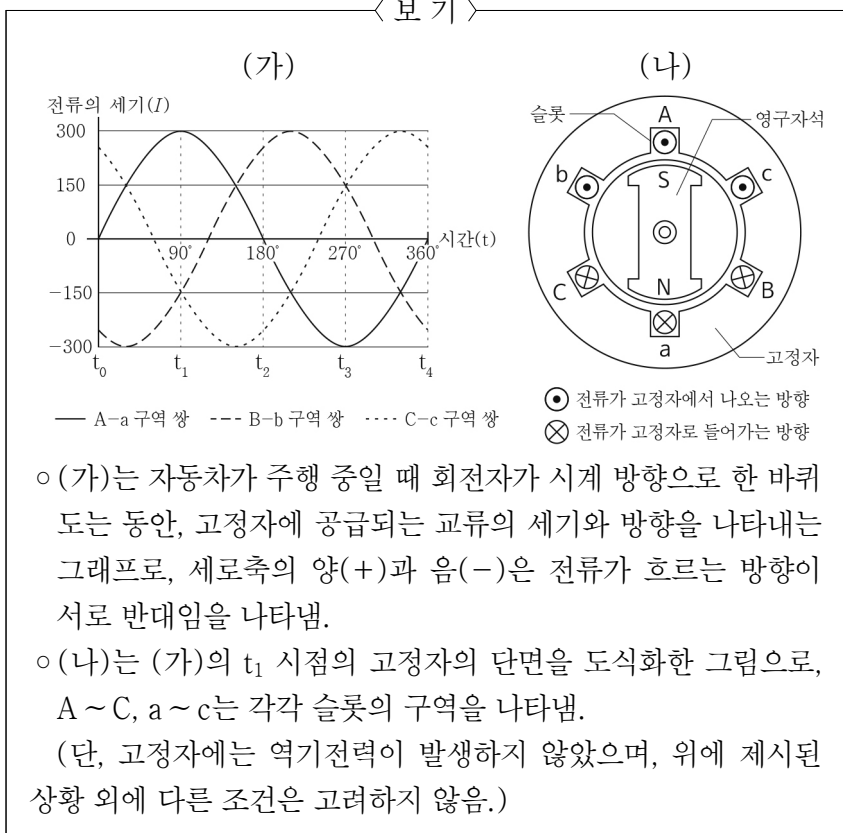
12. ‘제어 시스템’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속 신호를 받으면 전동기로 전류를 흘려보낸다.
- ② 배터리의 전류를 교류로 변환하여 전동기에 공급한다.
- ③ 전자석 형성 과정과 회전력 제어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 ④ 회전력 제어 과정에서 하나의 전자석이 회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전류를 제어한다.
- ⑤ 역기전력을 극복하기 위해 영구자석과 전자석의 같은 극성이 같은 방향에 놓이도록 전류를 제어한다.

1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구자석의 자기장에 의해 고정자의 자기장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 ② 회전자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안정된 자기장을 유지하려는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 ③ 배터리 전압이 상쇄되기 시작하면 고정자에 흐르는 전류의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 ④ 영구자석의 자기장 에너지가 전자석의 자기장 에너지에 의해 줄어들어 영구자석의 자기장이 전자석의 자기장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 ⑤ 빠르게 회전하는 영구자석의 자기장에 의해 고정자의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고정자에 흐르는 전류가 배터리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다.

14. <보기>는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구동 과정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t₀일 때, 고정자 표면의 전자석은 A-a 구역 쌍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쌍에서 형성된 자기장만을 통해 만들어지겠군.
- ② t₁과 t₃일 때, 제어 시스템은 전자석의 자기장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B-b, C-c 구역 쌍의 전류의 세기가 A-a 구역 쌍의 절반이 되도록 전류가 공급되는 시간차를 조절하였겠군.
- ③ t₂일 때, A 구역의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인 나머지 구역의 자기장들에 의한 것이겠군.
- ④ t₃일 때, 고정자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으로 인해 전자석의 N극이 a 구역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90도 앞선 위치에 형성되었다면, 회전하는 영구자석의 N극은 A 구역을 향해 있다고 산출되었겠군.
- ⑤ t₄일 때, 회전자 내 영구자석은 t₀과 동일한 위치로 돌아오고, 그 과정에서 바퀴에 회전력을 전달했겠군.

[15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악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칸트는 악이 인간 스스로 내린 주체적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적 욕구에 이끌리는 감성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인식하여 그에 따를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이다. 따라서 다른 이를 존중하는 것과 같은 선한 행위는 도덕법칙에 따르려는 선한 의지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도덕법칙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려는 성향이 있어, 욕망을 우위에 두어 도덕법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칸트는 이와 같은 성향으로부터 악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 근본적 성향을 ‘근본악’이라 명명하였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는 칸트의 이러한 윤리관이 현대 사회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 등과 같은 거대한 악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렌트는 제2차 세계 대전 전범의 재판을 분석

하며, 그 전범이 강렬한 악의를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료 체제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한 평범한 인간이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 개념화했다. 이는 악의 무게가 가볍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악의가 없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사유를 중단한다면 누구나 악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즉, 아렌트에게 악은 무사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아렌트가 악의 시작점이 무사유임을 강조한 이유는 칸트식 윤리관으로는 현대 사회의 악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렌트에 따르면, 칸트는 도덕법칙을 인식하는 순간 그 법칙의 옳음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칸트에게 악이란, 도덕법칙에 위배됨을 알면서도 욕망을 선택한 결과이다. 그러나 아렌트는 이러한 틀로는 도덕법칙을 잘 알면서도 그 의미를 스스로 되묻지 않은 채 명령을 이행하는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칸트의 도덕법칙에서는 인식과 사유가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렌트는 현대 사회의 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사유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식이 지성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활동이라면, 사유는 이성을 통해 스스로와 대화하며 도덕적 의미를 끊임없이 되묻는 활동이다. 따라서 법과 규칙을 인식한 전문가라도 사유를 중단하면 무사유에 빠질 수 있으며, 이것이 타자의 관점에서 상상하는 능력의 부재로까지 이어지면 심각한 악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무사유는 개인이 속한 현대 사회의 조직적, 행정적 환경에 의해 심화된다. 먼저, 전체 과정이 분업화된 업무 구조 속에서 행위자가 자신이 맡은 특정 임무에만 몰두하면, 그는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실제적 결과와 격리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지닌 의미나 그 임무의 결과가 초래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임무를 단순히 행정적 절차 중의 하나로 생각하게 되어 결국 현실과 괴리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조직 속에 속한 행위자는 권위자의 지시나 행정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행위자가 조직 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상투어에 익숙해져 이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쓰게 되면, 그 상투어가 가리키는 행위가 지닌 본질이 은폐된다.

아렌트는 심각한 악을 초래할 수 있는 무사유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된 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확장된 사유는 타자에 대한 맹목적 공감이나, 타자의 관점에서 이 세계가 어떻게 보일지를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도덕적 상상력이다. 아렌트에 의하면 타자는 저마다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를 지닌 존재이며, 나와 대등한 관계에서 세계를 구성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아렌트는 인간이 타자의 관점에서 세계를 상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현대 사회의 평범한 악을 극복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다시 사유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

15.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렌트는 타자에 대한 맹목적 공감을 지향한다.
- ② 아렌트는 타자를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를 지닌 존재로 본다.
- ③ 아렌트는 전범의 재판을 분석하여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 ④ 칸트는 인간을 감성적 존재이자 이성적 존재로 여긴다.
- ⑤ 칸트는 도덕법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게 하는 성향을 ‘근본악’이라고 정의한다.

16.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아렌트’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연구소 실험 보고서>

- **방식:** D가 오답을 낼 때마다 피실험자 B, C가 전압을 높여 전기 충격 버튼을 눌러 D에게 고통을 가하게 함. (단, 실제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는 않으나 B와 C는 그 사실을 모름.)
- **조건:** 연구원 A는 전기 충격을 가하라는 말 대신 ‘진행하십시오.’라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고, 피실험자들은 A에게 복종하도록 철저히 교육할 것.
- **결과:** B는 실험 참여를 중단했고, C는 가장 센 전압까지 버튼을 눌렀음.

○ **피실험자 인터뷰**

B: 제가 버튼을 계속 눌렀을 때 D의 관점에서 D가 받을 고통을 상상하게 되었고,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니 더 이상 실험을 지속할 수 없었어요.

C: 제가 숙지한 안내서에는 저의 임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가 철저히 위계화되어 있었고, 저는 맡은 임무에 충실히 임했고 A의 지시에 따랐을 뿐, D의 고통에는 책임이 없어요.

- ① A가 전기 충격을 가하라는 말 대신 ‘진행하십시오.’라는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 행위가 지닌 본질을 은폐하는 상투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겠군.
- ② B가 실험 참여를 중단한 것에 대해, 지성을 통한 지식의 습득으로 확장된 사유를 이룬 것이라고 보겠군.
- ③ B가 D의 고통을 상상하며 실험의 의미를 스스로 질문한 것에 대해, 타자의 관점에서 사유하는 능력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겠군.
- ④ C가 가장 센 전압까지 버튼을 누른 것에 대해,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단순히 행정적 절차로만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보겠군.
- ⑤ C가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조직 속에서 A의 지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보겠군.

17. 윗글과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타자를 자신의 도덕법칙이나 상상력을 통해 이해하려는 관점은 결국 타자를 ‘나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릴 뿐이다. 타자에 대한 존중은 내가 그를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즉, 타자는 내가 그를 이해하기에 앞서 이미 나에게 윤리적 응답을 요구하는 존재이자 나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윤리는 자아가 타자의 입장을 헤아리는 이성적 활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해가 작동하기도 전에 무조건적으로 타자에게 응답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서 성립한다.

- ① <보기>는 아렌트와 달리, 타자와의 관계를 타자가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관계라고 본다.
- ② <보기>는 칸트와 달리, 타자를 존중하는 것이 도덕법칙에 따르는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 ③ 아렌트와 <보기> 모두, 타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이성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④ 아렌트와 <보기> 모두,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 타자의 관점에서 상상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 ⑤ 칸트와 <보기> 모두, 참된 윤리는 도덕법칙에 대한 인식이 아닌 타자에 대한 윤리적 응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18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민법은 개인이 법률행위를 통해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신이 직접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인 ‘대리’를 두고 있는데, 대리에서는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자를 본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자를 대리인, 대리인과 거래하는 당사자를 상대방이라고 한다. 대리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하는 임의대리와 법률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주어지는 법정대리가 있다. 대리는 매매 계약 체결, 공적 서류 발급, 행정 기관에 하는 신고 등 일상 생활의 법률행위가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사적 자치를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대리권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임의대리에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 또한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현명’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현명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현명이 없었더라도, 대리인이 본인 대신 법률행위를 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이처럼 대리에서는 실제로 의사표시를 하는 자와 그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므로,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대리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대리인은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의사표시를 하는 주체이므로, 경우에 따라 대리인의 사적 이익과 본인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대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제한을 둔다. 자기계약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이고 쌍방대리는 하나의 법률행위에서 한 명의 대리인이 양측 당사자를 모두 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기계약의 경우 대리인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쌍방대리의 경우 양측 당사자 모두가 이익을 충분히 보호받지는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정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경우가 아닌 기존의 의무를 실현하는 것에 가까울 때에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 이미 정해진 채무를 그대로 갚아 나가면 되는 상황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본인이 별도로 허락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허용될 수 있다.

(나)

상인이 영업의 규모를 확장하고자 할 때나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업을 수행해야 할 때 등에는, 모든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데에 비용과 위험 부담이 ㉡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다른 상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상인인 보조상에 관한 제도를 규정하여 상거래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도모한다. 보조상의 대표적 예로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이 있다. 이들은 모두 독립된 상인이라는 점은 같지만 거래 시 누구의 명의로 행위하는지가 서로 다르다.

먼저 대리상은 특정한 상인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 상인의 영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다. 예컨대 특정 지역에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의 경우, 특정 지역 고객과 이미 신뢰를 쌓아 온 상인을 대리상으로 삼아 거래를 지속적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대리상에는 채약대리상과 중개대리상이 있는데, 채약대리상은 다른 상인을 위해 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대리상으로, 본인의 명의로써 의사표시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이때 본인은 대리상이 대리하는 상인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반면, 중개대리상은 거래를 알선할 뿐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계약하지 않는다. 대리상은 본인을 위하여 영업을 보조하므로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 대리상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등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를 하는 독립된 상인이다. 이때 ‘자기 명의로써’라는 것은 위탁매매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직접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고, ‘타인의 계산으로’라는 것은 그 거래의 이익과 손해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주식을 매매하려는 개인의 경우, 주식 시장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지닌 위탁매매인에게 매매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매매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위탁매매인은 위탁받은 매매를 마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알리고,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위탁매매인이 행한 거래로 발생한 채무를 상대방이 갚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게 해당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해야만 그 거래의 결과가 위탁자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상법은 본인이나 위탁자의 이익뿐 아니라 보조상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도 다양한 권리를 인정한다.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수수료나 비용 등을 받아야 할 시점이 지났는데도 이를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나 위탁자를 위해 가지고 있는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진다. 또한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의 거래가 증가하고 그것으로 인해 대리상의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대리상에게는 일정 기간 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위탁매매인에게는 객관적인 거래소 시세가 있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직접 자신이 거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개입권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1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특정 제도의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나)는 특정 제도의 한계점을 인과관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③ (나)는 특정 학자의 이론을 설명하고 다른 이론과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원리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합한 새로운 원리를 도출하고 있다.

19.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리는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적 자치를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 ② 임의대리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대리권이 부여된다.
- ③ 대리인은 본인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
- ④ 대리인은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표시를 하는 주체이다.
- ⑤ 쌍방대리는 하나의 법률행위에서 한 명의 대리인이 양측 당사자를 모두 대리하는 경우이다.

2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미 본인의 명시적인 허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 ② 대리인과 본인의 법률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 ③ 대리인의 권한이 확대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 ④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 ⑤ 의사표시의 주체가 대리인에서 본인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21. <보기>는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작성해 봅시다.

[질문 1] 상법에서 보조상에 관한 제도를 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 상거래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①

[질문 2]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 다른 상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독립된 상인이다. ②
 ○ 영업활동을 보호받기 위한 권리인 유치권을 갖는다. ③

[질문 3] 위탁매매 시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 객관적인 거래소 시세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위탁매매인이 거래에서 직접 위탁자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④
 ○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게 해당 채무를 갚아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⑤

22. (가)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금속 도매업체 A는 금속 판매점 운영자 갑에게 5년간 구리 매매 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일을 맡겼다. 제조업체 B는 원자재 매입 전문 상인 을에게 구리 10톤을 톤당 1,500만 원 이하로 확보해 달라고 의뢰했다. 갑은 새로운 거래처인 을에게 매매 계약이 A를 위한 것임을 밝혔다. 협의 끝에 구리 가격을 톤당 1,480만 원으로 합의하고, 갑은 A의 명의로써, 을은 자기 명의로써 계약을 체결했다. 갑의 활동으로 A와 을의 거래량이 증가했고, 5년 뒤 A와 갑의 계약 종료 후에도 A는 을과의 거래로 계속 이익을 얻었다.

(단,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갑이 A의 명의로써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갑은 계약 내용을 A에게 지체없이 알려야겠군.
- ② 갑이 A를 대신해서 5년간 구리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갑은 A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한 자격을 가지고 있겠군.
- ③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이 A를 위한 것임을 밝힌 것을 보아, 을은 갑이 행한 법률행위의 결과가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겠군.
- ④ A와 갑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A가 을과의 거래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갑은 일정 기간 내에 A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군.
- ⑤ B가 을에게 구리 매매를 의뢰하며 제시한 가격과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며 합의한 가격을 보아, 매매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B가 아니라 을에게 귀속되겠군.

23.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 ②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공부를 시작하였다.
- ③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꽃이 핀다.
- ④ 머리 좋기로는 내 친구를 따를 사람이 없다.
- ⑤ 우리 집 장아지는 할아버지를 유난히 따른다.

[24 ~ 27] (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고, (다)는 이를 바탕으로 쓴 비평하는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글, 음악, 그림, 영상과 같은 창작물은 오늘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창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창작자의 허락 없이 그것을 마음대로 복제하거나 배포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이다.

저작권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는 자연권 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저작권은 창작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노동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이므로 창작자의 창작물을 재산으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므로 그 신체의 연장인 노동을 투입한 사람이 그 결과물에 대해 재산권을 갖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작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들어 낸 창작물을 누군가 허락 없이 가져가 마음대로 이용한다면 창작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지 못한 것이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

도록 창작자의 노동으로 인한 결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저작권이다.

(나)

아포리아란 어떤 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그럴듯한 기준이나 주장들이 서로 충돌하여,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난관을 뜻하는 철학적 개념이다. 그러나 아포리아는 단순히 혼란스러운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기준이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한다.

예컨대 현대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 권리와 같은 근본적 가치를 흔들며 기존의 기준만으로 사회적 합의와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존의 가치 기준과 제도가 무력해져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을 아포리아라고 말할 수 있다.

아포리아의 상황 속에서는 먼저 철학적 기준점을 설정하고 문제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며, 문제의 모순이 발생한 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논의를 할 때에는 기술과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즉, 현대 사회의 아포리아 상황에서는 기술 변화에 맞추어 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처럼 지켜야 할 가치는 분명히 남겨 두어야 한다는 철학적 기준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

(다)

최근 인공지능은 짧은 시간 안에 글, 음악, 그림, 영상 등을 만들어 내며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예술 창작 분야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예술품에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인간의 창작물에 인정한 권리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결과물에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예술품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의 사람들은 그것이 기술 개발과 문화 발전을 장려할 수 있다고 본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예술품에 창작물로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예술품을 생성한 이용자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활발한 창작에 대한 유인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예술품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경제 전문가 ○○○ 교수는 정보의 대량 생산과 무한 복제가 가능한 현대 사회의 특성상 특정 주체가 대량의 창작물에 대해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예술품을 생성하는 과정에 인간의 판단과 선택이 개입되므로, 그 기여를 인정하여 인공지능 이용자에게 저작권

[A] 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해 예술품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이용자가 개입하는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간단한 명령을 입력해 산출된 예술품은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일 뿐이며 그 결과가 이용자의 의도나 예측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예술품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며, 인간의 노력으로 창작된 예술품에 대한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예술품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4. 다음은 학생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이다. (가), (나)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가)와 관련하여,

○ 저작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①

○ 저작권을 뒷받침하는 이론은 무엇일까? ②

(나)와 관련하여,

○ 아포리아의 상황이 가지는 긍정적 의미는 무엇일까? ③

○ 현대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문제는 무엇일까? ④

○ 아포리아의 상황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⑤

25. <보기>를 참고할 때, (다)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비평하는 글을 쓸 때는 쟁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후에 자신의 관점을 정하고, 자신의 관점이나 주장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임을 밝히고, 자신이 선택한 관점에 따른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자신과는 다른 관점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덧붙이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 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예술품에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임을 밝힌다.
- ②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예술품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관점을 선택하여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 ③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예술품에는 인간과 비교할 만큼의 창의성이 없다는 전문가의 말을 근거로 들어 자신이 선택한 관점에 따른 주장을 뒷받침한다.
- ④ 기술의 개발 및 문화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예술품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자신과는 다른 관점도 함께 제시한다.
- ⑤ 현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주체가 대량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과는 다른 관점이 가지는 문제점을 비판한다.

26. (다)를 작성하기 위해 (가), (나)를 읽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자연권 이론의 바탕이 되는 소유권에 주목하고, 창작물을 소유하려면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② (가)에서 창작자의 노동과 관련된 권리에 주목하고, 인간의 노동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며 읽었다.
- ③ (나)에서 아포리아를 해결하는 방법에 주목하고, 아포리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함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④ (나)에서 현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권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기술이 기존의 사회적 제도와 법에 맞게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⑤ (나)에서 아포리아의 상황에 주목하고, 현대 사회에서 기존의 가치 기준과 제도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아포리아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읽었다.

27. <보기>는 (다)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보기>를 (가), (나)와 연결 지어 (다)의 [A]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법이상주의는 실정법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문제 상황에서,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를 중심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아야 가장 이상적이고 올바른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복잡한 사건이 있을 때,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의 철학적 근거와 기초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①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저작권법의 근거가 되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 ②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법이상주의에 따라 자연권 이론을 중심으로 저작권법을 해석해야 함을 제시하고 저작권은 인간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창작한 예술품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라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 ③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기술과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이상적인 법이 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 ④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현대 사회의 특성을 설명하는 아포리아의 개념을 제시하고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게 이상적인 법을 제정하기 위한 새로운 철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 ⑤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기술 발전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모순 지점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예술품의 저작권에는 다양한 실정법이 적용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28 ~ 30] 다음은 작문 상황과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무언극(無言劇)을 준비하여 공연한 경험을 기록한 일지를 바탕으로 수필을 작성하여 학교 신문에 실으려 함.

◦초고

나는 평소에 표정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들어 왔다.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도 무표정한 얼굴 때문인지 내 의도와 달리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럴 때마다 속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중, 국어 시간에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 배우고 나서 모듈별로 무언극 공연을 해 보라는 과제를 받았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오히려 무언극 공연을 표정 연습의 기회로 삼아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격적으로 공연을 준비하기에 앞서, 친구들이 공연 준비에 도움을 받을 겸 무언극을 보러 가자고 제안해 함께 관람하게 되었다. 우리가 본 공연에서 배우들은 대사 하나 없이도 시시각각 변하는 표정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몸짓만으로 무대를 채워 나갔다.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인물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았다. 무언극을 보고 나서, 공연 포스터의 ‘말없이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나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진심을 담기 위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본격적인 공연 연습에 돌입했다. 반가움,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을 드러내는 표정을 연습해 봤지만 어색하기만 했다. 감정을 표정으로 전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하지만 다양한 감정을 담은 표정을 짓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여러 날 동안 연습했고, 조금씩 어색함이 줄어들었다. 슬픔을 표현할 때 눈썹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지, 반가움을 담으려면 눈과 입을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은지 하나씩 익혀 나갔다. 그렇게 연습할수록 굳어 있던 얼굴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공연 날이 되었다. 무대에 서는 순간 무척 긴장됐지만,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연습했던 것처럼 감정을 표정으로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 상대역 친구와 갈등이 깊어지는 장면에서는 미간을 찌푸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화해의 순간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힘껏 뻗었다. 나의 연기에 열띤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을 보니 자신감이 차올랐다. 무대를 내려올 때 터진 박수는, 내가 표정으로 표현한 감정이 친구들에게 온전히 가닿았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나는 공연 포스터의 문구가 다시 생각이 났다. 이제는 무대 밖에서도 내 표정이 무슨 말을 하는지 살펴보고 싶다. 진심은 말보다 표정에 먼저 담긴다. 말없이도 전해지는 것들을, 나도 이제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28. ‘초고’의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문단에서는 평소 자신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비언어적 표현 방식을 나열하였다.
- ② 2문단에서는 무언극을 보고 깨달은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공연 포스터의 문구를 인용하였다.
- ③ 3문단에서는 언어적 표현과 대비되는 비언어적 표현의 장점을 언급하였다.
- ④ 4문단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무대 위에서 겪은 실수와 그 극복 과정을 제시하였다.
- ⑤ 5문단에서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공연이 끝난 이후의 다짐을 서술하였다.

29. 다음은 일지의 일부이다. ㉠ ~ ㉡이 ‘초고’에 반영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언극 공연 일지>

11월 20일 (D-24)

◦국어 시간, 모듈별 무언극 공연 과제를 받음. ㉠

11월 25일 (D-19)

◦친구들과 무언극 공연 관람. 배우들이 대사 없이 표정과 몸짓만으로 감정을 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

12월 1일 (D-13)

◦본격적인 공연 연습 시작. 표정 연습이 쉽지 않음. ㉢

12월 6일 (D-8)

◦공연 연습 3회차. 계속 연습하니 어색함이 줄어들음. ㉣

12월 14일 (D-DAY)

◦본 공연 날. 친구들의 반응을 보며 자신감을 느낌. ... ㉤

- ① ㉠을 반영하여, 무언극 공연을 하게 된 상황과 이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제시하였다.
- ② ㉡을 반영하여,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감상과 자신의 평소 비언어적 표현 방식에 대한 성찰을 드러냈다.
- ③ ㉢을 반영하여, 표정 연습에 어려움을 느껴 공연 연습을 포기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 ④ ㉣을 반영하여, 표정을 연습하면서 어떤 점을 고려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 ⑤ ㉤을 반영하여, 공연 중 친구들의 반응에서 느낀 감정을 제시하고 공연 후의 소감을 덧붙였다.

30. <보기>를 반영하여 ‘초고’의 제목을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감정을 전달할 때 표정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드러낼 것.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무대를 통해 자신감의 날개를 달다
- ② 소리 없는 소통의 가치, 무언극에서 배우다
- ③ 가면처럼 굳어 있던 내 얼굴에서 일어난 변화
- ④ 감정을 담은 표정, 말없이 전하는 내 마음의 편지
- ⑤ 말의 한계를 극복하여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하기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루는 시호가 갑자기 말하되,

“국가의 맡은 임무가 무겁기에 나아감과 물러감을 마음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순천부는 부모님의 고향이 되었으니 어찌 차마 영영 이별하겠습니까? 우리 형제 국가의 일에 바빠서 조상의 산소에 자주 성묘도 못할 것이니 형은 충성으로서 황제를

뚝고 아우인 저는 벼슬을 물려나 형수와 아내를 데리고 고향에 돌아가 부모의 묘 아래에 머물면서 산소를 돌보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한림이 옳다 하시고 황성에 올라가 황제께 공손히 절하고 그 소원을 아뢰니, 황제가 기특하게 여겨 말하기를,

“충신은 원래 효자의 집안에서 난다고 했는데 부모를 위하고자 하니 짐이 어찌 말리겠는가?”

하며 시호를 허락하시더라.

시호가 황제를 하직하고 윤부인을 데리고 고향에 돌아와 선산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지극한 정성으로 하며 집안 다스리기를 엄숙하게 하더라. 또 문과 무를 겸전할 뜻이 있어 손자와 오자 등 병서의 근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몸을 민첩하게 하는 육도삼략과 바람과 비를 부릴 수 있는 기술을 통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하더라.

각설이라. 이때 한림이 몸을 국가에 허락하였기에 사랑하는 동생을 서둘러 이별한 뒤 자주 만나보지도 못하고 소식도 서로 통하지 못하는 가운데 말하기를,

“지금 조정에는 소인이 가득하여 나라의 일은 시간이 갈수록 잘못되어 가니 이 형의 마음은 항상 칼날 위에 앉아 있는 느낌이고 우물가에 서 있는 아이의 심정이다.”

라는 ㉠글을 써 보내고 스스로 탄식함을 마지아니하더라.

조물주가 시기하여 어진 충신을 다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룡인들 어찌 무사하겠는가?

[중략 부분 줄거리] 엄승의 모함으로 시룡이 유배되고, 형이 죽은 줄 안 시호는 강물에 투신하나 구출된다. 이후 대원수가 된 시호는 역모를 꾀한 엄승을 잡고 유배가 끝난 시룡은 시호가 죽은 줄 알고 황용사의 승려가 된다.

시호가 황제에게 아뢰되,

“내가 원수를 아직까지 살려두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황제가 말하기를,

“그대의 마음대로 처리하라.”

하니 즉시 나와 엄승을 묶어서 잡아내어 궁중에 꿰어앉히고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역적 엄승아. 나라의 녹봉을 받는 신하가 되어서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거늘 망국하게도 나라의 은혜를 배반하고 무엇이 부족하여 무식한 가달과 내통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느냐? 너의 행위는 너르고 큰, 하늘과 땅 사이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죄로써 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느냐? 또한 어진 승상을 축출하고 권력을 독점할 생각으로 나의 선친과 화목하지 못하였으며 전혀 무죄한 내 형을 모함하여 먼 곳에 유배를 가게하고 또 가다가 죽게 하였으니 이는 나라의 역적이자 나의 끝없는 원수다. 내 스스로 너를 처치하리라.”

하고 청용검으로 점점이 깎아 죽이더라.

황제가 한림을 불쌍하게 여겨 품계를 올려 충열공이라 하시고 시체를 고향을 모셔오라고 하더라. 그 때 전국에서 백성들이 병이 들어 무수하게 죽거늘 황제가 원수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들으니 전쟁 후에 백성들이 무수하게 병이 들어 죽는다 하니 이것은 약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듯하다. 경은 짐을 대신하여 황용사에 가서 제를 올려라.”

하시니 원수가 ㉡뉘를 받들어 황용사에 찾아갈 날짜를 미리 알리더라.

나라의 일이 많아서 그 사이 집에 들리지 못하였기에 한 장의

편지를 써서 윤씨 형수에게 보내고 그날 출발하여 황용사로 가니 그 위엄이 서리같이 엄숙하더라.

이날 황용사에 도착하여 주위를 깨끗이 정돈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후에 지극한 정성으로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에게 제사를 올릴 때에 제를 올리는 자리에 한림이 함께 참석을 하였더라.

그러나 슬프다. 원수는 감동하여 있지마는 마음이 한 곳으로만 쏠려 있고 또한 승려와 속세의 사람이 서로 다르니 어찌 서로 죽은 동생이며 죽은 형인 줄 알겠는가?

원수가 그 승려의 목소리를 듣고 속으로 탄식하여 말하기를, “천하에 이같이 나의 형과 꼭 같은 목소리도 다 있구나. 형의 목소리와 정녕 꼭 같으나 한 번 죽었으니 어찌 이곳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밤이기에 서로 얼굴을 살피지 못하고 서로 의심만 하더라.

원수가 제를 마친 후에 묵는 곳에 돌아와 형을 생각하니 눈물이 저절로 나고 한림도 동생을 생각하여 눈물이 솟아나더라. 이것은 마음도 지극히 중한 윤리와 기강의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 윤리와 기강이 아니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원수가 이날 밤에 꿈을 꾸니 법당에서 노승이 노래를 지어 부르되,

“반갑도다. 반갑도다. 춘풍 소식 반갑도다. 죽었던 초목도 다 꽃이 피어 봄빛을 상대하니 무수한 들매화 층층이 떨어졌다.”

하거늘 원수가 그 말을 듣고 깨달으니 동방이 밝았더라. 또한 한림이 꿈속의 일이 이러하므로 의심하고 있더니 대원수가 법당에 나아가 분향하고 두 번 절한 후에 관세음보살의 화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거늘 한림이 이상하게 여겨 원수에게 물어 말하기를,

“원수는 무슨 일로 관세음보살 화상을 보시고 슬퍼하십니까?”

원수가 대답하기를,

“나는 선친을 생각하여 슬퍼하거니와 스님은 무슨 까닭으로 얼굴에 슬픈 빛을 품고 나의 눈물 흘리는 까닭을 묻습니까?”

한림이 대답하기를,

“소승은 순천부에 살더니 동생을 잃고 매일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니 마음이 서로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한림이 원수를 대하여 말하기를,

“소승이 황송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뉘 님이라 하십니까?”

원수가 대답하기를,

“부친께서 승상 벼슬을 지내신 까닭으로 목승상 님이라 합니다. 대사는 성명이 무엇입니까?”

한림이 슬픈 얼굴빛으로 변하며 말하기를,

“소승도 본래 이름 있는 집안의 자손으로 국가의 은혜가 없이 한림학사 벼슬을 했는데 엄승상의 참소를 입어 먼 곳으로 유배를 당하였다가 동생을 잃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소승의 본래 이름은 목시룡이로소이다.”

하니 원수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얼굴빛이 변하며 말하기를,

“나는 시호로소이다.”

그저 이렇게 손을 잡고 모르는 사람처럼 보다가 큰소리로 울면서 말하기를,

“꿈인가. 생시인가. 동생아. 꿈에 왔느냐? 마음도 아니로다. 악양루 물에 빠진 동생이 아니냐?”

하고 서로 구르며 통곡하니 처량한 울음소리가 푸른 하늘에 사무치고 초목과 금수라도 다 슬퍼하는 듯하더라.

—작자 미상, 「목시룡전」—

3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제는 시호가 벼슬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자 허락하지 않았다.
- ② 시호는 시룡의 권유에 따라 선산을 지키기 위해 병서를 익혔다.
- ③ 황제는 시룡을 불쌍하게 여겨 시룡의 품계를 올려 주었다.
- ④ 시호는 황룡사로 떠나기 전 윤씨 형수를 만나 편지를 전했다.
- ⑤ 시호는 시룡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형과 닮았다고 생각하였다.

32. 다음은 윗글의 ㉠과 ㉡에 대한 학생의 메모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및 표현 방식’

- ㉠: 조정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비유적으로 드러냄. ①
- ㉡: 추측의 표현을 통해 전쟁 후에 발생한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냄. ②

‘정보 전달의 양상’

- ㉠과 ㉡: 동일한 상대에게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전달함. ③

‘서사적 기능’

- ㉠: 상대가 겪을 일을 보여 주어 서사적 긴장감을 고조함. ④
- ㉡: 인물을 이동시켜 공간적 배경을 전환함. 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목시룡전」은 형제의 이별과 재회를 통해 온전한 우애가 실현되는 과정을 그린다. 이러한 서사는 국가가 어려움에 빠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전개되는데, 악인은 형제가 우애를 나누고 충과 효를 실천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악인에 대한 처벌은 형제의 이별에 대한 사적 원한의 해소이면서 국가 질서의 회복을 의미한다. 시련 속에서도 지속된 형제의 우애는 신이한 서사 장치를 통해 부각된다.

- ① 시호의 제안으로 시룡이 황성에 올라가고 시호는 고향에 돌아온 장면에서, 형제가 충과 효를 실천하기 위해 이별함을 알 수 있군.
- ② 시호가 엄송의 죄상을 언급하며 꾸짖는 장면에서, 역적을 처벌하여 개인적 원한을 해소하고 훼손된 국가 질서를 회복하고자 함을 알 수 있군.
- ③ 황룡사로 간 시호가 시룡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에서, 나라에 닥친 어려움이 형제가 재회하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군.
- ④ 황룡사에서 시호와 시룡이 서로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 서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형제의 우애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시호가 노승이 나오는 꿈을 꾸고 시룡도 같은 꿈을 꾸는 장면에서, 형제가 신이한 암시를 서로가 살아 있음을 드러내는 징표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34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녹수청산 깊은 데로 골골이 들어가니
삼간초당 엄숙한데 작은 사립 달아 두고
향로에 연기 사라지고 석양이 저무는데
두견 꾀꼬리 슬피 울고 앵무공작 넘나드는데
층암절벽 수천 장에 폭포 물살 떨어지니
흐르느니 도화로다 무릉도원이 여기 아닌가
앉아보고 서서 보니 나도 또한 신선이다
사조의 좋은 시구와 장진주 노래할 때
화전난무 봉삼하요 운외고성 안구추라*
술 다 마셔 술 없으니 통소 한 곡 깊은 데 앉았네
이 놀음 다한 후에 공명을 기약하고
안장 수레 치장하여 서울 거리 찾아가니
장삼이사 소년들이 반겨 맞아 하는 말이
출세가 저러한데 늦게 옴은 웬일인고
경치 좋은 서울 다리 부르나니 자네로세
풍운*이 늦은 것을 기쁘게 대답하되
이윤의 신야 농사 탕임금을 만나 있고
여상의 위빈 낚시 문왕을 섬겼으니*
나도 또한 그 아니라 충신열사 후예로서
작은 마음 가슴 속에 충효 두 자 밝았으니
바라나니 성군이요 생각하니 명주(明主)로다
급암의 와회양도 그도 또한 직신(直臣)이요
노충련의 동해 죽음은 이 아니 의사(義士)런가*
황하수 한번 맑아 우리 성상 나계시니
하늘 같은 궁궐 안에 이 노래 들으시면
삼고초려 한의 유비 도원결의 송 태조가
제갈량을 다시 보니 조보야 또 아닌가*
한림원에 특교하여 의정부에 불러 모아
세 당상관 입궐할 때 곡진하게 하교하되
당우의 태평성대 내 벌써 하려 하나
고요직설* 못 얻어서 어진 신하 바랐더니
초야의 숨은 신하 이날에야 만났으니
오현금 남풍시*는 문노라 어느 때인고

(중략)

공명을 크게 닦고 벼슬 그만 아뢴 후에
범려의 오호주*로 한강수 건너와서
소광의 천일금을 담양군에 흩어두고
감군은(感君恩) 한 곡조로 태평주 빚었으니
형 오소 아우 오소 시골 인심 더욱 좋다
그도 그리하거니와 좌우 사람 바라보니
좋은 벗 구름 같고 훌륭한 벗 자리 가득
그대에게 권한 한 잔 오래 취해 깨지 마오
아이야 술 부어라 천하 만사 한바탕 웃음이다
이런 놀음 저런 놀음 꿈결인가 잠결인가
광명한 이 세상에 대장부 되어서는
질병 없이 살아감을 진실로 바라노라

—남석하, 「원유가(願遊歌)」—

*화전난무 봉삼하요 운외고성 안구추라: 꽃 앞에 어지럽게 춤추는 벌은 여름을 누리고 구름 밖에 우는 기러기는 가을을 기다리는구나.

*풍운: 세상에 두각을 나타냄. 높은 지위.

*이윤의 ~ 섬겼으니: 성군을 섬긴 충신 이윤과 강태공에 대한 이야기.

*급암의 ~ 의사런가: 충신 급암과 절의를 지킨 노중련에 대한 이야기.
 *삼고초려~또 아난가: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려 한 촉한의 유비와 송 태조에 대한 이야기.
 *고요직설: 성군 요 임금과 순 임금을 모신 어진 신하들을 일컬음.
 *오현금 남풍사: 순 임금이 오현금을 타면서 백성의 평안함을 노래한 시.
 *범려의 오호주: 월나라 범려가 은거할 때 탔던 배.

(나)

내가 평생 유감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남들은 모르고 나만 홀로 아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뜻을 구함이 높지 않고, 재주를 숨이 넓지 못했던 점이다.

나는 다섯 살 때 책을 읽을 줄 알았고, 자라면서 남을 좇아 배웠지만 겨우 몇 권에 그쳤다. 경서에 이르러서는 모두 스스로 가져다 읽었다. 하지만 은미한 말과 깊은 뜻은 남몰래 마음으로 이해한 점이 있는 것만 같았다. 만약 이것을 미루어 확장해서 육예(六藝)의 근본에서 구했다라면 얻은 바가 있었을 것이다. 집안이 빈천한지라 먹고 입기에 급급하다 보니 뜻과 학업을 키울 겨를이 없었다. 중년에 어려움에 처하고 궁함을 만나 이리저리 내몰리다 보니 마침내 배움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다. 어찌다가 시름에 싸여 답답하거나 짝 막혀 불평스러운 기운이라도 있게 되면 그저 시에다 이를 뿜다.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잘한다고 했고 문득 시인이라고 지목하곤 했다. 한번 이 같은 이름을 얻고부터는 사양할 길이 없었다.**

맹자는 “기술은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것이 무당이나 의원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설령 정말로 능하다 해도 또한 하나의 앵무새가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매번 이 생각만 하면 속으로 홀로 부끄러워 뉘우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일없이 편히 지내다가 문득 무릎 꿇고 똑바로 앉아 성현의 글을 읽으며 깊이 생각하고 완미하다 보면 얼마간 작은 유익함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 잘못을 바로잡는 바탕으로 삼으려다가도, 하루 별을 쬔고 나면 열흘은 **추위**에 시달리느라 마침내 능히 성취하지는 못하였다. 허둥지둥 반평생 동안 세월을 잘못 보내고 나니 이제에는 이미 늙어 탄식한들 어찌하겠는가?

올여름은 병들어 누워 문을 닫고 지냈다. 연일 **비**까지 내려 뜻을 부칠 만한 데가 전혀 없었다. 억지로 일어나 앉아 **송대 유학**자들의 여러 책을 펼쳐 읽다가 책을 어루만지며 사모하는 뜻을 일으켜 개연히 탄식하였다. 혼자 생각해 보니 타고난 자질이 명칭하고 둔하지는 않았으므로 진작 어린 **사우(師友)**를 얻어 학문에 종사하거나, 또한 재앙과 곤액을 만나 그 뜻을 꺾이게 하지 않았더라면 마땅히 이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일생의 광경을 가지고 허다히 아무짝에 쓸데없는 시만 얻고 말았으니, 어찌 애석해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내가 유감으로 여겨서 마음에 쌓아 둔 것이다.

이제 이를 펼쳐 보여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평소에 이 같은 뜻**이 있었지만 **이를 잃고** 만 것을 알게 한다면 마땅히 나를 위해 슬퍼해 줄 것이다. 주자께서는 일찍이 이태백의 일을 논하면서 “시인이 두뇌가 없는 것이 이와 같다.” 했는데, 내가 이를 몹시 부끄러워한다. 대저 사람이 되어 배움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돌아보니 내 나이가 올해로 일흔이라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위나라 무공에 비하면 아직 멀었으니 「억」이란 시로 경계한 뜻을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 늙고 병든 것이 이와 같으매 어찌 능히 할 수 있으랴! 하지만 저녁에 죽기 전까지는 도를 듣는 날이라, 애오라지 이를 써서 벽에다 걸고 스스로에게 경계로 삼는다.

—홍세태, 「자경문(自警文)」—

3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사를 활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선경후정의 구조를 통해 삶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청유형 표현을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심리가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작품에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35. (가)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견’과 ‘앵무공작’은 화자가 있는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② ‘좋은 시구’와 ‘통소’는 풍경에 대한 화자의 감흥을 복돋는다.
- ③ ‘소년들’과 ‘자네’는 화자가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 ④ ‘직신’과 ‘의사’는 화자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인물의 특성을 부각한다.
- ⑤ ‘감군’과 ‘태평주’는 평화롭고 흥겨운 분위기를 드러낸다.

36. 다음은 학생이 (나)를 읽고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은 수업 시간에 「자경문」을 읽었다. 나는 이 글의 글쓴이가 시인으로서 명성을 얻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자신을 경계한다는 뜻의 이 글 제목이 궁금증을 유발했다. ㉠ 글쓴이는 다섯 살 때 책을 읽을 줄 알았지만 자라면서 많은 책을 읽지는 못했고, ㉡ 경서를 읽을 때 좀 더 깊이 공부해 보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 글쓴이는 기술을 삼가라는 성현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나는 글쓴이가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글쓴이는 문제의 원인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아닌 자신의 타고난 자질에 있음을 자각했다. 그리고 ㉤ 자신이 깨달은 바를 벽에 걸고 항상 자신을 경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같은 글쓴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글의 제목이 지닌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7. (가)와 (나)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석양’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변하는 계기이고, (나)의 ‘비’는 글쓴이의 처지가 개선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 표현이다.
- ② (가)의 ‘충신열사 후예’는 화자의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이고, (나)의 ‘이를 본 사람들’은 글쓴이의 성취가 높다고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③ (가)의 ‘훌륭한 벗’은 화자가 만나고자 하는 대상이고, (나)의 ‘사우’는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대상이다.
- ④ (가)의 ‘대장부’는 화자에게 현재의 삶의 방식을 포기시키는 대상이고, (나)의 ‘송대 유학자’들은 글쓴이가 삶 속에서 본받고자 하는 대상이다.
- ⑤ (가)의 ‘질병’은 화자가 이미 헤쳐 나간 시련이고, (나)의 ‘추위’는 글쓴이가 앞으로 견뎌 내야 하는 현실이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가)와 (나)에는 이상적인 삶을 지향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가)의 화자는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 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상황과 성과를 이룬 후의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소망을 표출한다. (나)의 글쓴이는 지난날을 성찰하며 현실과 이상의 간극에서 오는 고뇌를 드러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추구해 온 삶을 현실에서 실현하려 한다.

- ① (가)에서 ‘성상’이 ‘이 노래 들으시면’ 자신을 ‘이날에야 만났’다고 한다는 것을 통해 화자가 임금으로부터 신임받는 상황을 상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나)에서 ‘평소에 이 같은 뜻’이 있었다고 하며 ‘이를 잃’었다고 한 것을 통해 학문을 하고자 하는 포부를 이루지 못해 애석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나)에서 ‘남들은 모르고 나만 홀로 아는 것’이 있음을 언급하며 ‘제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통해 글쓴이가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가)에서 ‘폭포 물살’을 보며 ‘무릉도원’을 떠올리는 것을 통해 화자가 자연 속에서 만족하고 있음을, (나)에서 ‘이 같은 이름’을 ‘사양할 길이 없었다’는 것을 통해 글쓴이가 원하던 바를 이루고 도 이에 자만하지 않음을 알 수 있군.
- ⑤ (가)에서 ‘벼슬 그만 아된 후’의 삶에서 ‘천하 만사’가 ‘한바탕 웃음’이라는 것을 통해 화자가 공명을 이루고 한가롭게 지내고 싶어 함을, (나)에서 ‘사람 노릇’을 떠올리며 남은 ‘살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통해 글쓴이가 여생에 배움을 실천하려 함을 알 수 있군.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떠냐? 니 생각은.”

명준은 아무 대답이 없이 앞에 놓인 문집을 멀뚱히 내려다본다.

“왜 말이 없지? 이번 가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문집을 책으로 펴낼 생각이다. 니 의향은 어떠냐? 말해 봐라.”

그제야 명준은 불쑥 한마디 한다.

“난 모르겠어요.”

㉠ 송 노인은 눈언저리가 화끈해지는 느낌이다. 녀석의 입에서 그런 말밖에 안 나올 줄 알았지만, 껄뚱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송 노인은 애써 느긋하게 마음을 먹으며,

“모르겠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하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 명준은 뭐라고 대꾸하려다가 말고, 주둥이를 삐죽 빼둔다.

“안 그러냐? 생각해 봐라, 너한테는 증조부가 아니냐. **멀지도 않은 증조부**의 문집을 세상에 펴내자는데 모르겠다니, 그게 자손으로서 할 소리냐?”

‘멀지도 않은 증조부’라는 말에 명준은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는다. 한 번 본 적도 없는 증조부가 멀지 않다니 그럼 누가 멀단 말인가. ‘증조부’라는 말 자체가 명준은 벌써 멀고 서먹한 것으로 들리는 것이다. 할아버지라면 본 일이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멀지 않다고 하겠지만, 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멀지 않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십이 넘어 어느덧 머리에 새치가 희끗희끗 섞이기 시작하는 터인데도 명준은

생각이 그런 식이다.

그러나 차마 그런 투로 대꾸를 할 수는 없는 듯 말문을 다른 쪽으로 연다.

“세상에 펴낼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러죠.”

“가치가 없다니, 너 그게 무슨 말이냐?”

㉢ 송 노인은 눈이 휘둥그레진다.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서슴없이 나오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다.

“요즘 세상에 이런 책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책을 만들어** 보았자 **읽지도 못**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문 투성인 책을 누가 거들떠보거나 할 것 같아요?”

㉣ 그러면서 명준은 문집을 아무렇게나 팔랑팔랑 서너 장 넘겨 본다.

송 노인은 잠시 말문이 막힌다. 하기야 그 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한문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많을 게 아닌가 싶어,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고 고개를 내젓는다.

“니 생각보다는 **한문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직 많다**. 족보를 보려무나. 요즘 족보를 책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족보는 다르죠.”

“다르긴 뭐가 달라. **족보도 다 한문으로 된 거** 아니냐. 자손 된 도리를 다할 생각이 있으면 족보나 문집이나 다를 게 없는 거여. 그리고 설사 많은 사람이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만 몇 사람만이라도 읽어서 그 진짜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여. 어디 꼭 많은 사람이 읽어야만 가치 있는 책인가.”

그 말에 명준은 아버지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멀뚱히 바라본다. 노인이 제법 그럴듯한 말을 한다 싶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코언저리에 얹은 웃음을 떠올리며,

“책을 만드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하고 말했다.

송 노인은 또 눈언저리에 열이 화끈 오르는 느낌이다. 마침내 애기의 요점으로 들어선 셈이 아닌가.

“뭐 많이 찍어낼 것도 아닌데, 들면 얼마나 들겠어.”

“모르시는 소리 마세요.”

“그럼 몇 백만 원 든단 말이냐?”

“그렇게 안 들 줄 알아요?”

“한 이삼백 권 만들 건데, 그렇게 많이 들 턱이 없다.”

㉤ **이삼백 부 찍어도 조판하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조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기나 해요? 더구나 한글도 아니고 한자잖아요. 요즘 잘 안 쓰는 한자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일일이 활자를 새로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표지는 읍세트로 해야 되니까. 그게 또 얼마나 비싸게 먹히는데요.”

명준은 회사 홍보실에서 잡지 만드는 일에 종사한답시고 득의연하게 지껄여댔다.

조판이 뭔지, 읍세트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터이라,

㉥ 송 노인은 이맛살을 약간 찌푸리며 슬그머니 고개를 돌린다.

“돈이 좀 들더라도 **좌우간 만들어야**겠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아세요?”

읽을 줄도 모르면서 곧장 가치를 내세우는 게 왠지 못마땅한 듯 명준은 내지르듯이 말한다.

“㉠ 나는 안다. 나는 일자무식이다마는 이 문집에 가치 있는 글이 담겨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단 말이다. 우리 조부가 어떤 분인지 너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알어. 그분은 학식이 높은 선비면서 애국자여, 애국자.”

[중략 부분 줄거리] 송 노인은 아들의 협조를 얻지 못한 채 고향에 내려가 고향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문집을 간행한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할아버지.”
 윤국이는 표지에 써어 있는 ‘매산문집’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물었다.
 “우리 조부의 문집 아니냐. 그러니까 너한테는 고조부로구나. 고조부의 문집을 이번에 책으로 찍어낸 거다.”
 “아, 저 반단이 속에 들어 있던 그 책 말이군요.”
 “그렇지.”
 “고조부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지요?”
 “그래, 그래. 이번에 할아버지가 고향에 가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왔지.”
 “이 책 만들러 할아버지 고향에 가셨어요?”
 “그래, 너의 애비가…….”
 송 노인은 내뱉으려다가 그만둔다.
 윤국이는 책을 뒤적거리려보면서,
 “이거 순 한문 아냐, 후졌다, 후졌어.”
 하고 투덜거린다.
 “후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틀렸다 그 말이에요.”
 “틀리다니…….”
 “순 한문이라 읽을 수가 있어야죠. 틀렸지 뭐예요.”
 “엑키, 이 녀석, 너도 꼭 너거 애비하고 같구나. 한문이지만 아주 가치가 있는 책이다. 아느냐? **나중에** 너도 커서 한문도 배워가지고 **읽어보**도록 해라. **우리 집안의 가보** 같은 책이란 말이다.”
 “가보가 뭔데요?”
 “집안의 보물이란 말이여.”
 “이게 보물이에요?”
 “그래.”
 “히히히…… 예, 알겠어요. 할아버지. 히히히…….”
 윤국이는 곧장 킬킬거리며 방문을 탁 닫고 나가 버린다.
 —하근찬, 「조상의 문집」—

39.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속 서술자가 다른 인물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② 장면마다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이야기 밖 서술자가 상황에 대한 인물의 판단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④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가 자신이 겪은 내부 이야기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 ⑤ 서술자가 한 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4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세부 사항을 나열하여 자신의 설명을 구체화하고, ㉡은 비교 표현을 활용하여 추가 설명을 요구한다.
- ② ㉠은 추가적인 조건을 덧붙여 절충안을 제안하고, ㉡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 ③ ㉠은 상대의 이해 정도를 고려하여 설명하고, ㉡은 상대의 의견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견해를 강조한다.
- ④ ㉠과 ㉡은 모두,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일반화한다.
- ⑤ ㉠과 ㉡은 모두, 자신만 알고 상대방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41.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명준의 말을 몹시 언짢게 여기는 송 노인의 심리를 드러낸다.
- ② ㉡: 송 노인의 말에 못마땅해하는 명준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③ ㉢: 예상치 못한 명준의 반응에 놀라는 송 노인의 심리를 드러낸다.
- ④ ㉣: 문집을 성의 없이 살펴보는 명준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⑤ ㉤: 기분이 상해 의욕을 잃어버린 송 노인의 심리를 드러낸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산업화로 인해 사회가 변화하면서 전통을 중시하는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 작품은 조상과 조상이 남긴 문집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을 통해 전통적 가치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부각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조상이 남긴 문집의 가치를 옹호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하려는 태도와 문집의 가치를 실용성과 경제성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태도를 대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① ‘떨지도 않은 증조부’라고 말하는 송 노인과 달리 증조부가 ‘떨지 않다니 말도 안 된다’고 명준이 생각하는 데에서, 조상을 떨고 가깝게 느끼는 정도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책을 만들어’도 ‘읽지도 못’한다며 증조부의 문집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 명준이 반문하는 데에서, 실용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한문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직 많’다며 ‘죽보도 다 한문으로 된 거’라고 송 노인이 말하는 데에서,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의 공존을 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돈이 좀 들더라도 좌우간 만들어야겠’다며 문집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송 노인이 말하는 데에서, 경제적 측면보다 전통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송 노인이 윤국에게 문집을 ‘나중에’ ‘읽어보’라고 권하며 ‘우리 집안의 가보’라고 하는 데에서, 조상이 남긴 가치 있는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겠군.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학적 표현에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에는 공간이나 시간이 비현실적으로 재구성되거나 시적 대상이 비현실적 변화를 겪는 상황이 형상화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시적 형상화 과정에서 서로 대비되는 시어나 시구가 연결되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이때 ㉠ 시적 의미를 형성하는 다양한 표현은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주제를 구현한다.

(나)

화석 속엔 한 마리

새가 난다.

결코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는 새.

내가 흘린 눈물도

쥐라기 지층 어느 하늘 아래

하나의 보석으로 반짝거릴까,

가령 죽음이라든가,

죽음 앞에서 초롱초롱 빛나던 눈.

스스로 ㉡ 불에 타서 소멸을 선택하는

지상의 별들이여

문혀라 화석에.

영원히 죽는 것은 이미

죽음이 아니다.

—오세영, 「보석 1」—

(다)

눈이 피곤하고 침침하여 두 손으로 잠시 얼굴을 가렸다

손으로 덮은 얼굴은 어두웠고 곧 어둠이 손에 배자

손바닥 가득 해골이 만져졌다

내 손은 신기한 것을 감지한 듯 그 뼈를 더듬었다

한꺼번에 만져버리면 무엇인가 놓쳐버릴 것 같아

아까워하며 조금씩 조금씩 더듬어나갔다

차갑고 무뎡뎡하고 무엇에도 무관심한 그 물체를

내 얼굴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음직한 그 튼튼한 폐허를

해골의 껍데기에 붙어서

생글거리고 눈물 흘리고 찡그리며 표정을 만들던 얼굴이여

마음처럼 앓디앓은 얼굴이여

자는 일 없이 생각하는 일 없이 슬퍼하는 일 없이

내 해골은 늘 너를 보고 있네

잠시 동안만 피다 지는 얼굴을

얼굴 뒤로 뺀어 있는

얼굴의 기억이 지워진 뒤에도 한참이나 뺀어 있는 긴 시간을

선글라스만한 구멍 뚫린 크고 검은 눈으로 보고 있네

한참 뒤에 나는 해골을 더듬던 손을 풀었다

순식간에 햇빛은 살로 변하여 내 해골을 덮더니

곧 얼굴이 되었다

오랫동안 없어졌다가 갑자기 뒤집어쓴 얼굴이 어색하여

나는 한동안 눈을 깜박거렸다 겨우 눈동자를 되찾아
서둘러 서류 속의 ㉢ 숫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김기택, 「얼굴」—

43. ㉠을 중심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다)는 색채어의 대비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상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공감각적 심상을, (다)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주목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4.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시적 대상이 피하고자 하는 억압적 상황이고, ㉢는 시적 화자가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 ② ㉡는 시적 대상이 과거를 성찰하고 있는 상황이고, ㉢는 시적 화자가 과거를 망각하기 위해 보이는 반응이다.
- ③ ㉡는 시적 대상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고, ㉢는 시적 화자가 복잡한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 ④ ㉡는 시적 대상이 고민하던 일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이고, ㉢는 시적 화자가 고민하던 일이 해소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 ⑤ ㉡는 시적 대상이 선택한 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황이고, ㉢는 시적 화자가 일상으로 돌아와 적응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45. (가)를 참고하여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는 ‘영원히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는 진술을 통해, (다)는 ‘폐허’가 ‘튼튼’하다는 진술을 통해 시구나 시어가 원래 지니던 속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군.
- ② (나)는 ‘한 마리’ ‘새’가 나는 행위와 ‘화석 속’의 연결을 통해, (다)는 ‘얼굴’을 ‘손으로 덮’는 행위와 ‘해골’의 연결을 통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형상화하는군.
- ③ (나)는 ‘눈물’이 ‘보석으로’ 변화하는 비현실적 상상을 통해 영원에 대한 소망을, (다)는 ‘햇빛’이 ‘살로 변하’는 비현실적 상상을 통해 생명력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군.
- ④ (나)는 ‘지상’과 이에 ‘결코’ 닿지 않는 ‘새’ 사이의 관계를 통해, (다)는 ‘눈물 흘리’는 ‘얼굴’과 ‘슬퍼하는 일 없’는 ‘해골’ 사이의 관계를 통해 시적 대상 간의 대비를 보여 주는군.
- ⑤ (나)는 ‘쥐라기 지층 어느 하늘’이라는 표현을 통해 공간을, (다)는 ‘뺀어 있는 긴 시간’을 ‘구멍 뚫린’ 눈으로 ‘보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시간을 각각 비현실적으로 재구성하는 인식이 드러나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